



그림 빅뱅의 멤버이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인 지드래곤(권지용)이 9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과학기술의 협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의 음원과 홍채 이미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위성기술에 의해 우주로 송출됐다.

10일 KAIST 우주연구원은 전남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교수가 지드래곤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한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KAIST가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추진해 온 'AI 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이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소속 가수이자 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의 메시지와 음원을 우주로

음원 홈스윗홈·에밀레 종소리 혼합해 우주 문화 콘텐츠 실험

송출하는 프로젝트이다. '인간 내면의 우주를 외부 우주로 확장하는 감성적 신호'를 주제로 KAIST의 첨단 우주 기술과 이진준 교수의 미디어아트 작품, 지드래곤의 음성과 음원을 하나로 연결한 '우주 문화 콘텐츠' 실험이다.

이진준 교수는 지드래곤의 홍채 이미지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천년의 시간을 품은 에밀레종의 종소리 데이터를 활용한 사운드와 결합해

누리호 안테나 이용해 업로드 '지구 밖 송출' 퍼포먼스 완성

미디어아트 작품 '아이리스(Iris)'를 제작했다. 여기에 지드래곤의 음원 '홈스윗홈(HOME SWEET HOME)'의 오디오 메시지를 결합해 지구 밖 우주로 전파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완성했다.

음원은 2023년 5월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안테나를 이용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송출됐다.

영상은 13m 우주 안테나에 프로젝션 매핑 방식(실제 구조물에 빛과 영상을 투사

해 시각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술)으로 상영됐다.

이진준 교수는 "홍채는 '영혼의 거울'로 불릴 만큼 내면의 감정과 정체성을 비추는 상징"이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지드래곤의 시선을 따라 '인류의 내면으로 바라본 무한한 우주'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작품 취지를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과학 발전을 통해 전 세계가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제가 아끼는 곡을 선정해 우주로 보낸다는 게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면서 "굉장히 설레고, (제 곡이) '제대로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카이다이리·연합뉴스

스포티파이 5억 회 스트리밍 BTS '아이돌'... 통산 15번째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아이돌(IDOL)'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 수 5억 회를 넘겼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0일 밝혔다.

2018년 8월 발매된 이 노래는 지난 8일 기준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방탄소년단 단체곡이 5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통산 15번째다.

이들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타이틀곡인 '아이돌'은 사우스아프리카 댄스 스타일의 노래다.

아프리카 비트 위에 국악 장단과 추임새를 더한 것이 특징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1위,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 21위에 올랐다.



KBS 2TV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후속작 '여왕의 집'이 28일부터 방영된다. '여왕의 집' 포스터. KBS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28일 첫 방송

KBS 2TV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후속작 '여왕의 집'이 28일부터 방영된다.

'여왕의 집'은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던 한 여자가 인생을 강탈당한 뒤 복수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남편을 빼앗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강재인 역할은 가수 출신 배우 함은정이, 친구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강세리 역은 이가령이 연기한다.

'오! 삼광빌라'의 홍서구 PD, '순정복서' 흥은미 PD가 함께 연출을 맡고, '내일도 맑음'의 김민주 작가가 각본을 쓴다.

가수 켄타 "꿈 좇은 길에 6억 빛... 그래도 행복 포기 못 해"

일본인 K팝 아이돌 멤버... 자전 에세이 출간

"노력한 끝에 있는 행복한 나를 만나기 위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JBJ와 JBJ95의 일본인 멤버로 활동한 켄타(다카다 켄타·高田健太)가 자전 에세이 '천 원뿐이라도 재밌는 인생'을 출간했다.

10일 출판사 비밀신서에 따르면 켄타는 이 책을 통해 '반계에 맞은 듯' K팝 팬이 된 계기, K팝 아이돌이 되고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마디밖에 한국어를 모르는 채 무작정 한국에 온 이야기, 고시원

생활에서 시작해 데뷔의 꿈을 이룬 과정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켄타는 2017년 넷플릭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출연해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찍었지만 데뷔조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프로그램 종영 이후 '프로듀스 101 시즌 2' 출연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 JBJ로 데뷔했다. JBJ는 TV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켄타는 이듬해 JBJ 해체 이후 동료 멤버

상균과 2인조 그룹 JBJ95를 결성해 활동했다. 두 멤버는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확인받았지만 각각 수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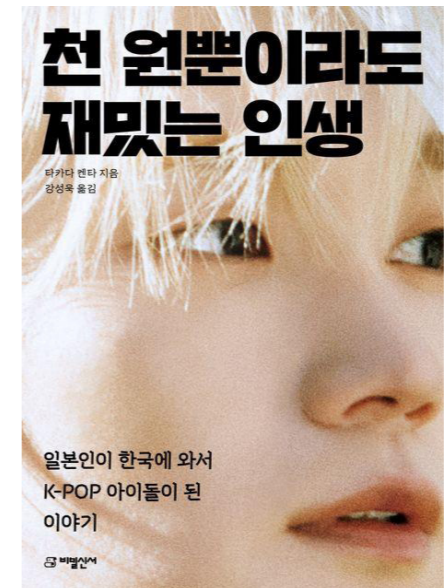
켄타는 "남은 계약 일수에 따라 나는 6억 원의 빛이 생겼다. 이것이 법이 내린 대답이었다"며 "내가 꿈을 좇아 달려온 끝에 빛이 생겼더니, 결과만 보면 회사를 나온 게 정답이었는지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해 "금액이라는 가시화된 정보만 보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분하다"며 "그렇지만 법률상 사실이 돼 버렸다. 무슨 말을 한들 그저 감정 싸움이 될 뿐"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켄타는 그러면서도 "인생은 재미있다"며 "가진 돈이 천 원뿐이라도 어떻게든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정답을 찾아내려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켄타는 2021년 서울과 도쿄에서 직접 그린 회화 등을 선보이는 개인전도 열었다. 그는 현재 동료 멤버 상균과 함께 듀오 '켄타상균'으로 활동 중이다.



그들 JBJ와 JBJ95의 일본인 멤버로 활동한 켄타(다카다 켄타·高田健太)가 자전 에세이 '천 원뿐이라도 재밌는 인생'을 출간했다. 비밀신서

드디어, 총선백서가 나왔다.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가 쓴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이 책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패한 원인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이 현 상태로 어영부영 가면 2년 뒤 지방선거 완패, 3년 뒤 대선에서 완패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김정은체제·적화통일로 가는 대문이 열린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윤석열정부·국민의힘·애국단체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공산화를 막고 전세를 역전할 비법이 있다. 이 책이 그 구체적인 재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희천

186쪽 (신국판변형) | 정가 16,000원
도서출판 대추나무
문의 010-8799-1500

일찍이 이 책이 나왔더라면 자유민주진영이 현재처럼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때늦은 탄식)의 아쉬움이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